

# 남성의 부모기로의 전이와 직업역할: 전이시기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Men's Work Role and Transition to Fatherhood:  
Does Transition Timing Matter?

서울대학교 농가정학과  
부교수 한 경 혜

Dept. of Home Economics, Seoul National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Gyoung-Hae Han

## (목 차)

- |             |            |
|-------------|------------|
| I. 들어가는 글   | IV. 분석결과   |
| II. 선행연구 고찰 | V. 요약 및 논의 |
| III. 자료수집   | 참고문헌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work role and fatherhood role of young men who experienced the transition to fatherhood within the last two years. The effect of transition tim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 role and fatherhood was also explored. In-depth, qualitative data were gathered from thirty men.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exist differences in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mong timing groups. Differences were also found in the nature of career demand between 'late' fathers and 'early' or 'on-time' fathers. However, no clear effects of timing of fatherhood on men's parenting behavior and attitude toward fathering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 role and fatherhood were found.

### I. 들어가는 글

성인기로의 전이(transition to adulthood)에 통과  
레가 존재하지 않는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취업, 결

혼 및 첫 자녀 출산이라는 일련의 과정들이 성인  
로의 전이를 의미한다. 이들 성인기로의 전이패턴에  
관한 연구들이 생애과정 접근(Life Course Perspective)  
의 주된 관심영역의 하나로서 최근 서구 및 일본에

\* 본 연구는 199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공모과제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서 활발히 진행되어 오고 있다. 이들 연구들은 하나 같이 산업화와 함께 전이과정을 서치는 연령의 코호트 내 분산이 줄어들음을 관찰하고 있다. 즉, 현대로 올수록 전이를 경험하는 기간이 압축되고 전이의 속도가 빨라지는 등 성인기로의 전이에 있어 연령등급화(age-grading)정도가 심화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거시적 변화가 개인 수준에서 갖는 의미는 청장년들에게 있어 직업과 가족이라는, 생애과정상 두 가지 중요한 영역에서의 역할전이의 시기가 중복되거나 짧은 기간 내에 집약되어 일어나는 소위 life cycle squeeze (Oppenheimer, 1974)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젊은 남성들이 결혼 후 자녀 출생에 따른 부모기로의 전이를 경험하는 가족 형성기가 독립된 직업인으로서의 정체감을 형성해야 되는 직업경력상의 초기시기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역할긴장 및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남성의 가족역할과 직업역할간의 긴장 가능성은 아버지역할(fatherhood)의 내용 및 역할기대의 변화에 의해서도 증가하고 있다. 즉 성역할과 가족 이데올로기의 변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 가족의 성격 변화와 함께, 일반적으로 현대 젊은 남성들은 가족부양자라는 종래의 전통적인 역할에 머물지 않고, 더욱 능동적인 아버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아버지 역할과 직업 역할과의 상호관계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다중역할 수행이 역할 긴장 및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주로 여성에 집중되어 왔고, 남성을 대상으로 수행된 소수의 연구들은 주로 직업역할에만 치중되어 왔다. 또한 최근 증가하기 시작한 직업과 가족과의 상호영향에 관한 연구나 부모기로의 전이 연구 역시 주로 여성에 국한되어 왔다. 이는 가족학자나 사회학자들이 남성의 정체감 확립이나 생의 성공정도가 평가되는 주 영역은 직업이며, 가족역할은 주변적이라는 전통적 시각에 사로잡혀 왔기 때문으로, 가족연구에서 남성은 '잊혀진 집단'이라고까지 일컬어지고 있다.

그러나 서구에서는 남성의 심리적 복지가 직업역할에서 영향 받는 정도 혹은 그 이상으로 가족역할

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실증적 연구결과들이 축적되기 시작하였고(Kelly & Voydanoff, 1985; Greenhaus, 1989), 또한 직장에서의 역할수행의 효율성, 생산성 및 사기 등이 가족역할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결과들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Menaghan & Parcel, 1990; Voydanoff, 1988). 부모기로의 전이과정에 관한 연구들도 남성에게 있어서 어머니로의 전이가 긍정적 측면 외에도 심리적 부담, 직업역할과의 긴장, 승진 지연과 같은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기 시작하였다(Barnett, Marshall, & Pleck, 1992). 이와 같이 남성의 생애 있어서 가족역할/부모역할이 갖는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증가와 함께, 최근 서구 및 일본에서는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직장수준에서 정책적으로 연구투자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우리 나라 남성의 경우도 지난 30여 년간 진행된 사회변화와 함께 성인기로의 전이 기간이 단축되고(한경혜, 1993), 가족 내에서의 아버지의 역할이 급속히 변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젊은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남성의 가족역할에 관한 연구가 전반적으로 매우 부족하다. 아버지로서의 역할에 관한 연구는 아동발달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여 아버지의 특징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 연구들이 주를 이룬다. 남성들의 생애 있어 아버지 역할과 직업역할과의 상호성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실증적으로 다룬 연구로는 이숙현(1995), 한경혜(1995), 최혜경(1995)의 연구가 있는 정도이다. 부모기 전이에 관한 국내 연구들은(고선순·유선화, 1993; 박숙자, 1991; 양명숙, 1991; 이숙현, 1990) 전이에 따른 부부관계의 변화에 집중되어 있으며 아버지와 관련된 남성들의 개인적 경험 자체에 관한 연구는 극히 부족한 실정이다. 부모기 전이와 직업역할과의 관련성은 취업모의 어려움 등 주로 여성의 경험을 중심으로 논의(이숙현, 1990)되어 있다. 송지은·한경혜(1994)의 연구에서는 남성들을 대상으로 하여 아버지가 뱀에 따라 경험하는 보상/대가 지각에 대하여 살펴 보았지만 직업역할과

의 상호성은 고려하지 않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우리 한국사회에서도 사회변화에 따른 아버지 역할 기대 및 남성 생애과정상의 변화가 젊은 남성들에게 있어서 아버지 역할과 직업역할과의 긴장관계를 증가시키고 있다는 기본 가정 하에 부모기로의 전이와 직업역할간의 상호관계를 탐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만 2세 이하의 첫 자녀를 가진 남성을 대상으로 하여 아버지 역할과 직업역할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또한 아버지로의 전이 시기에 따라서 역할수행의 유형이나 긴장관계 등이 차이가 있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이들은 비교적 최근에 아버지로의 전이를 경험하였고 직업경력 상에서도 초기에 속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본 연구는 한국남성의 생애과정 변화와 함께 가족과 직업과의 연계관계를 이해하고, 나아가서 남성에 대한 연구 확대가 한국가족의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 II. 선행연구 고찰

가족학 분야에서 남성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증가한 것은 극히 최근의 일로 국내외를 막론하고 남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형편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아버지로의 전이와 역할에 관한 연구는 남된 역할, 부부관계에 대한 연구보다도 상대적으로 더욱 부족하다. 따라서 부모기로의 전이와 직업역할과의 관계에 대한 문헌고찰을 위해서는 그 이론적 또는 실증적 배경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연구의 흐름을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선 남성의 심리적 복지와 가족역할과의 관련성을 시사하는 연구들의 출현을 지적할 수 있다. 남성에게 있어 직업역할만이 주요하며 가족역할은 주변적이라는 통념에 도전하면서, 남성의 심리적 복지가 직업역할에서 받는 정도 혹은 그 이상으로 가족역할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결과들이 발표되기 시작하였다(Thompson & Walker, 1989). 특히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의 증가와 함께, 가정에 대한 여

성의 경제적 기여가 남성에게 가족역할에 참여하게 하는 압력으로 등장하게 되면서 비록 속도는 느리지만 기존의 성역할 부담체계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면서 직업과 가족생활과의 상호관련성을 강조하는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직업과 가족과의 연계성(interface between work and family)연구가 활발해짐에 따라 직장에서의 역할수행의 효율성, 생산성 및 사기 등이 가족역할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결과들도 축적되기 시작하였다. 역으로 근무시간 및 시간조절의 융통성과 같은 직업역할의 특성이 남성의 가족 내 역할, 아버지 역할의 실제 수행내용과 만족도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Menaghan & Parcel, 1990; Staines, 1986; Voydanoff, 1988).

한편, 부모기로의 전이과정에 관한 연구들도 초기에는 주로 여성만을 중심으로 다루었으나 가족이 갖는 체계로서의 특성상 남성들에게도 직,간접 영향을 미침을 인식하게 되면서 남성들의 아버지로의 전이에 관한 탐색이 시작되었다. 이들 연구들은 남성에게 있어서도 아버지로의 전이가 긍정적 측면 외에도 심리적 부담, 직업역할과의 긴장, 승진 지연과 같은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기 시작하였다(Barnett, Marshall, & Pleck, 1992; Coltrane & Ishii-Kuntz, 1992:). 그런데 이들 연구들은 '언제' 첫 자녀를 출산하느냐 하는 전이시기가 아버지 역할 수행 및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부모로의 전이시기를 연기한 아버지들이 아버지 역할수행에 적극적이며, 역할 만족도도 높고, 직업경력에서도 더욱 성공적이라는 것이다(Coltrane & Ishii-Kuntz, 1992; Daniels & Weingarten, 1982). 남성은 성인기로의 진입이 이루어지는 20대가 특히 직업경력 초기단계로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여기에 쏟을 때이며 이 단계는 직장에서의 일이 많고 직업 안정성이 낮은 시기(Rapoport & Rapoport, 1969)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결혼과 부모기로의 전이도 이 시기에 집중되어 있다. 더구나 사회변화와 함께 소위 '새로운 아버지 상(new fatherhood)'으로 지칭되는, 자녀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남성상에 대한 사회 문화적 기대가 확산되면서 남성은 여성과는

또 다른 독특한 갈등을 경험할 수도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Cooney, Pederson, Indelicato & Palkovitz, 1993). 따라서 첫 자녀 출산을 연기하는 것이 직업 역할과 새로운 가족역할에의 동시진입에 따른 재정적, 시간적 압박과 심리적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다고 지적된다. 또한 부모기로의 전이가 '늦은' 집단이 직업지위가 높고 소득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최근의 질적 연구들은 또한 부모됨의 시기가 부모 행동, 가정내 가사분담 및 심리적 복지에도 중요영향을 미친다고 시사하고 있다. Daniels & Weingarten(1982)의 연구에 따르면 30세 이후 부모가 된 경우 재정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아버지들이 자녀양육에 더 협조적이고 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직장에서 초심자 단계를 지났기 때문에 워라밸 가족관련 활동에 투자, 참여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자유, 융통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Coltrane(1989, 1990)은 중산층 맞벌이 부부 20쌍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에서 부모기로의 전이시기를 늦추는 것이 가족형성과 직업경력 초기에 나타나는 다중역할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일찍 자녀를 갖는 부모들보다 부모역할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무난한 전이경험을 가지는 것을 보여 주었다. Nydegger(1973)도 32세 이후에 아버지가 된 남성들이 그 이전에 첫자녀를 가진 남성들보다 아버지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적게 느끼고 역할만족도가 높았으며 경제적 압력 및 직업에서 느끼는 스트레스가 적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Nydegger는 부모기로의 전이가 '늦은' 남성들이 적극적 아버지 역할에 대한 동기유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May(1982)도 '일찍' 아버지가 된 남성들은 경제적 기반이나 직장에서의 입지가 불안정하며 아버지 역할에 대한 준비 정도가 낮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Coltrane & Ishii-Kuntz(1993)는 아버지로의 전이 시기가 가사노동 분담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자 28세 이전에 첫자녀를 얻은 남성을 아버지로의 전이가 '이른' 집단, 그 후에 첫자녀를 얻은 남성을 '늦은' 집단으로 분류하여 비교한 결과 20대 후반까지 첫자녀 출산을 미룬 남성들이 가정내 역할에 더욱 많이 참여하였음을 보여주었다. Cooney(1993)

등의 연구에서는 아버지로의 전이가 늦은 남성이 아버지 역할 수행에 보다 적극적이었으며 다른 사회적 영역에서 직면하는 역할요구가 적기 때문에 아버지 역할에 대하여 긍정적 태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 Ⅲ. 자료수집

한국에서 남성의 부모기로의 전이와 직업역할과의 상호성을 전이시기와 관련하여 살펴 본 선행연구가 없고 본 연구가 탐색적 성격을 가지므로 질적 연구 방법을 택하였다. 자료는 최근 2년동안 아버지로의 전이를 경험한 직장 남성들 3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하여 수집하였다. 직업의 성격, 지위가 다양해지면 아버지로의 전이와 직업역할간의 상호작용의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근무 스케줄이 구조화되어 있는 기업근무 회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전이의 시기별로 첫자녀 출생이 빨랐던 아버지와(early fathers), 늦었던 아버지(late fathers) 및 적정시기의 아버지(on-time fathers)를 모두 포함해야 하며, 조사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심층면접의 특성상, 조사대상 선정은 눈덩이 표집에 의하여 임의표집하였다. 면접은 대개 1시간-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조사대상자의 직장을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직장의 회의실이나 상담실, 휴게실에서 면접을 진행하였다. 면접은 자녀에 관한 대화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자녀에게 주는 사례품을 전달한 후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면접내용은 면접대상자들의 허락을 얻어 녹음하였으며 이를 꺼리거나 응답시 특별히 녹음기의 존재를 의식하는 듯한 응답자는 보이지 않았다.

모든 조사대상자에게 아버지로의 전이시기에 관하여 시기의 적절성에 관한 평가 및 출산 계획정도, 연령규범과의 일치정도 등에 관하여 질문하였고, 아버지 역할 수행 내용 및 첫자녀 출생과 관련된 긍정적, 부정적 변화를 알아보고, 아버지 역할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알아보았다. 직업역할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근무시간, 직업경력, 직급, 직업만족도 및 직업에 대한 성취지향성, 직업에서의 스트레스등을

질문하였다. 아버지 역할과 직업역할간의 상호관련성을 탐색하기 위하여 응답자들이 지각하는 두 역할간의 상호영향과 긴장/갈등 존재여부 및 그 성격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녹음된 내용은 필사본으로 만들어졌으며 필사본을 3-4차례 읽으면서 주요 테마별로 응답자들의 이야기를 비교 분석하는 constant comparative method(Glasser & Strauss, 1967)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면접은 1994년 1월-3월과 6월-8월 사이에 수행되었다.

조사대상이 된 30명의 직장남성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은 26세에서 34세의 분포를 보였으며, 평균 연령은 29.2세였다. 결혼기간은 1년 2개월에서 4년까지의 분포를 보였으며, 2명의 응답자가 중매결혼, 7명의 응답자가 중매반 연애반 결혼을 나머지 21명은 연애결혼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자녀의 연령은 6개월에서 21개월까지 분포하였고 남아가 17명, 여아가 13명이었다. 부인이 취업을 한 응답자가 12명이었으며 직업은 사무직 5명, 국교 교사 1명, 중학교 교사 1명, 간호원 1명, 학원 교사 2명, 서비스직 2명인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동거하는 응답자가 3명이었으며, 나머지 응답자는 핵가족 형태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직장 경력은 18개월에서 7년 2개월까지 분포하였으며 소득은 115만원에서 170만원 사이에 속하고 평균 129.7만원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2/3이상이 가정에서 직장까지 1시간에서 1시간 30분까지의 거리에 살고 있었으며 정규 출퇴근 시간은 평일은 7시-7시 30분사이에 집을 출발하여 6시30분-7시경에 집에 도착하며 토요일은 2시-2시 30분경에 집에 도착한다는 응답자가 과반수 이상이었다.

#### IV. 분석결과

##### 아버지로의 전이시기

선행연구에서 사용되는 부모기로의 전이시기가 '늦은가' '이른가'를 나누는 방법은 크게 네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는 전이를 경험한 당사자가 인지하는 연령규범, 즉 '적정연령'에 기준한 주관적 판단에 의하여 전이의 시의성을 평가하는 방법이 있고 둘째

는 결혼시기와 첫자녀 출산시기의 간격의 차이로 부모기로의 전이가 연기되었는가를 평가하는 방법이 있다. 셋째는 거시사회의 인구학적 추세를 반영하여 통계적 규범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기준연령 전과 후로 나누어 '이르다' '늦다'로 분류하는 방법이 있다. 다음은 조사대상 표집 전체의 전이연령의 4분위수를 기준으로 하여 표집의 25%와 75%가 첫자녀를 가진 연령을 각각 이르거나 늦다는 분류의 기준으로 삼거나 median값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이 소규모이고 질적 심층 면접에 의하여 자료가 수집되었으므로 면접대상자들의 주관적 판단에 기준하여 아버지로의 전이시기의 시의성을 이용하였다. 아버지가 되는 적당한 시기에 대한 사회적 연령규범의 범위는 대부분의 응답자(71.4%)가 29-30세 사이를 지적하였다. 한편 5명의 응답자가 자신이 '일찍' 아버지가 된 편이라고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들의 전이 연령은 25세 1명, 26세와 27세가 각각 2명이었다. 33세에 첫자녀를 본 응답자를 포함하여 6명의 응답자가 자신이 '늦게' 아버지가 되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들의 전이연령은 31세, 32세, 33세 각각 2명씩이었다. 나머지 19명의 응답자는 자신들의 전이가 주변의 친구나 사회적 연령규범에 비추어 볼 때 '적당한'(on-time)시기에 이루어졌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들의 전이연령은 27세-31세사이에 분포하여 '일찍' 혹은 '늦게' 아버지가 되었다고 인지하는 집단과 실제연령에서 약간의 중복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집단간에 사회인구학적 특징에 있어 차이가 나는가를 살펴 보았다. 교육수준은 white collar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성격상 모두 대학졸업이상의 학력으로 집단간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on-time'집단과 늦은 집단간에 각각 1명씩 대학원 학력을 소지한 응답자가 있었다. 직장내 직급은 응답자의 연령단계, 직업경력 특성상 대부분이 평사원이었으나 '늦은' 집단에서 6명 중 대리가 3명, 과장이 1명으로 나타나 아버지로의 전이가 '늦은' 집단이 연령이 높기 때문에 서구의 연구들이 지적하듯이 직업경력에서 다른 집단과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득에 있어서도 '늦은'집단이 141.2 만원으로 '빠른' 집단

(123.1만원)이나 'on-time'집단(125.4 만원)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아버지로의 전이가 늦은 집단이 아버지 역할 수행에 적극적이고 역할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는 논의의 근거 중 하나로 서부의 연구들은 결혼에서 출산까지의 기간이 길어서 부모가 전이에 적응할 심리적, 경제적 자원을 축적할 수 있는 준비기간이 길다는 측면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본 조사대상 남성들의 경우, 결혼에서 출산까지의 기간은 세 집단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서 아버지로의 전이시기가 결혼에서 출산까지의 기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결혼연령에 의해 주로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 아버지로의 전이와 직업역할의 중복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다양한 전이연령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응답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은 모두 졸업 후 하고 직장에 취직을 한 후에 결혼과 첫자녀 출산을 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Hogan(1978)이 지적한 이른바 비규범적 전이순서유형(non-normative disorderly transition pattern)은 본 조사대상자들에게서는 관찰되지 않았다.<sup>1)</sup> 실제 전이가 '이른' 집단은 군대의무가 면제되었거나 방위근무로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졸업, 취직, 결혼의 성인기 전이과정을 경험한 반면, 그 외의 응답자들은 군대에 복무한 기간때문에 졸업, 취직, 결혼의 시기가 늦어졌다는 차이가 있을 뿐 졸업, 취직, 결혼 전이의 순서나 시기중복은 '이른' 집단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공통점은 결혼 이후 3년을 피임을 하면서 첫자녀 출산 시기를 늦춘 사례 하나를 제외하고는 모든 응답자가 결혼 이후—첫자녀 출산까지의 시간 간격이 대개 1년 2년 사이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피임술의 발달, 보급으로 자녀 출산의 시기조정이 예전보다 용이하고 여성의 취업 증가로 맞벌이 부부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조사대상자들의 경우에는 결혼—아버지로의 전이까지의

시간이 상당히 확연적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조사대상자들의 경우 이 두가지 공통적 요인이 복합 작용하여 아버지로의 전이와 직장에서의 조년병 시기가 대개 중복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즉 귀족과 결혼, 첫자녀 출산이 대개 3년-4년내의 기간에 모두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으며 1년 이내에 집중되어 경험한 응답자도 2명 있었는데 이들은 아버지로의 전이가 '빠른' 집단에 속한 응답자들이었다. 따라서 많은 응답자들이 직업역할에 있어서 직장 조년병으로서 업무를 익히는 시기와 결혼, 출산 등의 가족역할의 중복에서 시간이나 에너지 부족 그리고 그에 따르는 심리적 부담을 복합적으로 경험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연애 결혼했어요. 회사 입사하고 전배 소개로 만났습니다. 군대 갔다 와서 졸업식도 하기전에 입사하고, 입사하면서 연애 시작하고 직장에서도 조년이라 상당히 힘들었지요. 모르겠습디다. 일단 힘들다 하면, 회사의 입장에서는 경력이 별로 안 쌓였으니까, 그런 와중에 일배우면서 결혼 준비하고, 결혼하고 이러니까, 사실 입사한지 얼마 안 되니까 경제적으로도 넉넉한 것은 아니잖아요.”

“연애할 때는 7시, 8시 어떤 때는 심지어 10시에 회사 끝나고도 만나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이틀이 멀다 하고 매일 만나고 그랬지요. 요즘은 하라고 해도 못할 것 같아요. 그때는 일을 배운다는 인턴으로 하니까, 10시, 11시 어떤 때는 새벽 2시까지, 밤새도록 일 한 적도 있었고, 자주는 아니었지만 초파에서 누워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회사에서 세면하고 일했거든요. 결혼 초기까지 이게 인상이 되요...”

“스트레스 많이 받았습디다. 실제로, 저 신입사원 때는 열심히 일을 배우는 시기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91년도에 입사하여 93년도 초에 결혼하기 전까지는 열심히 하았는데, 그날 때 그 시점에서 저희 전배가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신입사원 2년차 때 많은 일을 맡았고, 결혼 준비도 해야하지 바빴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팀의 대리가 다른 곳으로 가서 업무량이 두 배 세배로 늘어났거든요. 기기에 아이는 태어나서 상황이 그렇지, 회사에서도 물론 일이 엄청 많았고, 그

1) 2명의 사례에서 대학교 졸업 전에 취직이 결정되어 졸업식을 하기 전인 4학년 2학기 말에 이미 업무를 시작한 경우가 관찰되었지만 이는 취업 후에 학업을 계속하는 것과 성질이 다르므로 전이 순서가 바뀌었다고 보기 어렵다.

래서 어떤 때는 아침에 회사에도 전혀 가고 싶지 않았고, 회사에 나오면 집에 가기 싫은 적도 있었고, 집에 가면 잠을 못 자니까, 어떤 때는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차에서 히터 켜놓고, 1시간 정도를 자고 들어가는 적도 있었고, 집안 일에 많은 신경을 써야하는 상황인데, 집안일을 신경 쓸 수 없는 상황, 그래서, 그만 돌까 하는 적도 있었고, 아니면, 시골에 내려가서 살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집안일에 신경 쓸 수 없는 상황이라니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가요?) 회사에서 일을 몰물 안가라고 하다 보면, 집안의 부인도 중간 중간 체크해야하고, 아이는 어떤지 알아야 하고, 그걸 할 수 없는 기예요. 그리고, 일하다 보면 8시, 9시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난감해 지지요.”

또한 경제적 스트레스가 현실적 무게를 가지고 구체화되었음을 지적하는 응답자들이 많았다.

“취직후 바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짐장만동의 결혼 자급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모아놓은 것도 없고, 그런데 애기가 태어나니까 이게 실제적인 문제로 부각이 되는 걸 느끼게 되었지요.”

“아무래도 어려운건 경제적인거죠. 사실 결혼을 부모 도움 없이 하는게 어렵잖습니까. 재정적인 독립에 대한 스트레스지요. 미래에 대해서 목표랄까 그런게 불확실하다는게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애를 낳고 나니까 그게 가시화되는 거죠.”

이러한 가족역할/직업역할간의 중복에 따른 시간/에너지 및 경제적 긴장, 부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첫자녀 출산시기를 특별히 조절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나서 위에서도 이미 지적하였듯이 아버지로의 전이시기의 차이는 주로 결혼연령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대다수가 이렇게 조절하지 않은 임신, 출산을 ‘계획된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자녀출산을 결혼하면 당연히 겪게되는 규범적 사건으로 인지하고, 기대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 아버지 역할의 의미와 양육참여

결혼에 관한 이데올로기 연구에서 권오주(1989)는 우리나라의 경우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있어 가사와 육아는 여성의 역할이라는 성차별 의식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런가 하면 최근들어 아버지들의 자녀양육 참여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높아지며, 젊은 남성들의 경우는 실제로 전통적 성역할 규범에 크게 지배받지 않고 자녀양육에 상당한 정도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논의되어 지기도 한다. 본 연구대상 남성들은 과연 어느 정도 양육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아버지 역할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알아보았다.

경제적 부양자로서의 책임이나 권위적 아버지 상보다 자녀와 대화하는 아버지를 이상적인 아버지상으로 지적하는 응답자들이 가장 많았다. 김은희(1994)는 핵가족화와 더불어 가족간 ‘대화’가 우리나라 중산층의 새로운 규범으로 자리잡게 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본 조사 대상자들도 대부분 ‘권위적 존재’보다는 친근하고 대화가 통하는 아버지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응답하였다.

“아버지 역할은 경제적으로 봤을때... 요즘은 남자 여자가 맞벌이를 하니까 크게 남자가 전권을 담당하는게 아니니까... 그걸 떠나서 애가 아버지의 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상적인 아버지란 부인이나 자녀와 대화를 많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꼭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아무리 취해서 들어와도 안사람과 대화를 하죠. 싸우기라도 하면서”.

“일단 제가 되고 싶은 아버지상은 저희 아버지 같은 상인데, 일단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애정을 표현하셨어요. 물론 옛날에는 엄하고 회초리드는 아버님상이 일반적이지만 아버지는 저에게 항상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자주 맞았는데, 그때마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이야기 해 주시고... 아버지하고 대화를 많이 한 편입니다. 저는 지금 아기가 7개월밖에 안되었고, 부인과 집에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많거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뚜렷하게 그려져있는 것은 없지만... 앞으로... 물론 필요할 때는 매도 들 것입니다. 하지만, 내 자녀

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마음을 열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아버지, 남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 잘 벌어서 주는 아버지는 저희 집사람도 그것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저도 그것만 해 가지고 남편, 아버지 역할을 다했다고 하기도 싫고요”

“열심히 직장에서 일해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집안을 보았을 때, 아버지는 직장일, 엄마는 가사일 그렇게 확연히 구분이 되었는데, 저는 그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관심을 가지고 아이의 교육 문제랄지 그런 건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는 것이 굉장히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협조한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역할이 경제적 부양자 역할에서 확대 되었음을 지적한 이런 응답자들이 많았다

그러나 구체적 역할수행 내용을 살펴보면 아기 돌보기의 주책임은 여전히 여성의 몫이며 아버지들은 주로 놀아주기 등 유희적 측면의 돌보기를 주로 하고 기저귀 갈기, 밤중에 재우기 등은 여성이 주로 담당하는 일반적 유형이 본 조사의 응답자들에게서도 여전히 관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접대상 아버지들은 대부분 형편·필요에 따라 아기 우유 먹이기, 재우기, 기저귀 갈기 등 가리지 않고 아기 돌보기 전반에 상당 정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전통적인 엄격한 성역할 분리는 많이 완화된 듯 하였다.

“일단 바쁜 일이 특별히 없을 경우 대부분 바로 집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아기랑 같이 놀아주고, 그림책도 보여주고, 집사람이 저녁준비를 하여야 하니깐, 그리고, 잘 때도 제가 아이를 데리고 잡니다. 퇴근해서 제가 집에 있는 한 제가 아이를 많이 돌봅니다. 우유도 먹이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잘 때 제가 데리고 자는 것은 제가 좋기도 하고, 한편으로 집사람이 하루종일 고생하고, 피곤해서 그렇습니다.(아이하고 노는 것 때문에 쉬지 못한다는 생각은 안해보았는지요?) 아기랑 노는 것이 쉬는 것이 되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기랑 많이 놀아서 그런지 저를 많이 따릅니다.”

“제가 들어가면 봐 주는 편이지요. 우유도 먹여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같이 놀아주고, 집사람과 같이 씻겨주고요. (외출하면 누가 애기를 안고 나가요?)

그것도 대중없습니다.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요.

여성의 취업증가로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여성들이 가정경제에 한 몫을 하게 됨에 따라 남성들도 자녀양육등 집안일에 완전히 무관심할 수 없다는 식의 사고가 자리잡고 있음도 눈에 띈다. 다음의 응답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본인의 아버지 역할수행 정도는?) 저는 살한다고 생각하는데 집사람이 가끔씩 말하는 것 들어보면, 한 70점 정도는 될것 같아요. 집사람이 어느 정도 수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사에 어느 정도 많이 도와주고 합니다. 보유 먹일때는 할 수 없지만 씻을 땀 때 밥을 세우면서 애를 봤어요. 여름에 더울 때 안고 재우기도 많이 했어요. 안아주고 장난감 가지고 놀고 짹짹, 끈지끈지 시키기도 하고 목욕도 같이 시키고 기저귀는 물론 같이요...”

그러나 부인이 전업주부인 응답자들의 경우는 남성이 직장에서 일을 하고 경제적 부양자 책임을 수행하므로 자녀 양육 등 가사일은 ‘집에 있는’ 부인의 책임하에 둔다는 전통적 성역할 분담론을 주장하는 응답자들이 상당수 있었다.

“부인이 밤차리는 동안은 아이를 돌봐야 하고, 아이가 쉬하면 갈아주어야 하고, 뭐 그런 정도지요. 밤에 자다가 아이를 달래는 일은 주로 부인이 하였는데, 양심없이 나 몰라라 할 수 없어서 깨어 있는 적은 하였어요. 이럴때 부인하고 각방을 쓰는 사람들도 있더군요. (요즘은 젊은 사람들은 여러가지 면에서 아이도 잘 돌보고 그런다고 하던데요?) 제가 듣기에도 요즘의 신세대 남편들은 많이 가사일도 도와준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를 포함한 제 주변 친구들이 많이 보수적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제가 많이 돕는 것 같지 않아요. (왜 그러신 것 같아요?) 남자는 밖에서 일을 하고, 부인은 안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요. 제가 밖에서 일을 하면, 부인이 안에서 썰거주어야 한다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그러나 스스로를 보수적이라고 평가하는 응답자들도 자신들 세대가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기목욕은 종종 시켜주고요. 기저귀도 많이 갈아주고 밤도 자주 먹이고… 요즘 내 또래 젊은이들은 다 그렇게 되가는 거 같아요. 옛날처럼 애는 엄마가 키우고 아빠는 안하고 그렇지 않고 다 나처럼 하는 거 같아요… 내 나이에서 분기점이 되는 것 같아요. 나보다 나이 많은 선배들은 좀 덜한 것 같고, 나 또래 사람들은 나랑 비슷한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 집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비교가 되어서 아기에겐 못해준다는 말을 듣기도 하구요. 그런거 보면 내 또래 남자들이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집안일 같은 것은 모르지만 아기돌보는 일은 나도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특히 집사람도 같이 직장에 나가기 때문에… 사실 생각만큼 행동이 따라갈지는 모르지만… 내가 30대 초반이라서 더욱 이런거 같은데 친구들도 비슷해요. 글썽 비슷한 부류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매형들을 보면 나보다 10살 위에서부터 2살차이까지 있는데 큰 매형은 구시대이고 막내 매형으로 내려올수록 태도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러한 변화는 같은 직장 내에서도 연령에 따른 차이로 나타난다.

“지금 부장급과 과장 이하는 같이 야근을 해도 달라요. 부장급 이상은 집에 부인한테 전화 한 통화도 안해요. 밑에 사람들은 좋게 말하면 사랑이고 아니면 아내 눈치보는 거예요. 전화를 자주하죠. 애기 자느냐 뭐 그런거 묻고.”

가족구조 측면에서 볼 때 점차 핵가족 단위로 살게 되면서 부모나 기타 친척의 지원이 용이하지 않은 것도 남성의 아버지 역할 확대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 와이프가 임신 4주부터 누워 있었는데, 유산기가 있어서, 그때부터 모든 집안일을 다 했습니다. 그때 다 하게 되더라고요. 와이프는 누워있고, 가서 밥하고 빨래하고 다 하였는데, 그게 출산하기 2~3달전까지 유지가 되었어요. 그때 저는 뭐 직장에서 과감치 되고 집에서는 그 일을 하였는데, 또 아이가 태어나자 마나 아팠어요. 그리고, 산후조리를 잘못하셔서 고생

을 하였어요. 그런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집에 가면 제가 많이 해요. 어제도 아이가 세절이 바뀌니까 잠을 잘 못자고 4시에 잠이 들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내일 일을 해야 한다고 잠을 잘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으면 계속하지요. 그래서 (부인이) 참 미안해 하지요.”

반면에 부모와 함께 사는 응답자들의 경우 아버지의 자녀양육에 대한 참여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은 핵가족 형태가 대부분이었으나 3명이 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이들은 각각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아버지 역할요? 글썽요… 잘 못해요. 집사람과 어머니가 있으니까… 가끔 한번씩 안아주고… 별로 안해요.”

“일단 퇴근하고 함께 하는 시간이 짧으니까. 그리고 어머니가 다 돌봐 주시니까 제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어느 잠지를 보고 제가 시간을 재어본 적이 있어요. (아기와 보내는 시간이) 저도 하루에 한시간이 안되더라고요.”

이상의 이야기들에서 나타난 젊은 남성들의 아버지 역할 수행 내용을 보면, 부인의 취업여부, 가족구조, 성역할 관념의 전통성 정도 등 개인적, 가족적 특성에 따라 역할 참여 정도에 있어 차이가 나며 많은 다양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볼 때, 면접자들에게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점이 아기양육에 아버지가 제 2인자이며 남자가 할 일이 아니라는 식의 전통적 의식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들 젊은 아버지들에게 있어서 자녀양육 참여에 방해가 되는 요인은 성역할 태도의 전통성 보다는 오히려 직장 시간, 역할 과다로 자녀 양육에 참여할 시간, 에너지의 부족을 지적하는 응답자가 상당수 있어서 이숙현(199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이러한 긴장·갈등의 내용이나 정도에 있어 전이 시기 집단간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보았다.

### 직업역할·아버지역할간 긴장과 전이시기

첫 아이를 출산하는 시기가 대부분의 남성들에게 있어 직업경력 초기단계로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직장일에 쏟을 때이며, 직장에서의 업무량이 많으면서 아직 위치가 확고하지 않아 직업안정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시기인 것으로 지적된다(Rapoport & Rapoport, 1969).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아버지로의 전이시기를 늦출수록 직장역할 부담이 작기 때문에 아버지역할과 직업역할 간의 긴장가능성을 적게 경험할 것으로 지적된다. 본 연구 대상 남성들의 경우에도 아버지로의 전이가 빠르다고 지각하는 응답자들과 'on-time' 응답자들에 비해 전이가 '늦은' 응답자들이 직장에서의 위치가 어느 정도 안정되었다고 지각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자신들이 직장에서 상사들의 눈치를 살피야 하는 '완전 초심자' 단계는 지났으며 어느 정도의 융통성을 상황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특히 '늦은' 집단에 속하는 남성들은 업무를 하나에서 열까지 모두 처음부터 배우는 단계는 지나서 업무의 성격 파악이나 수행에 나름대로 자신의 패턴을 자리매겼다고 응답하여 직업역할 수행에서의 자신감을 나타내는 응답자들이 대부분이었다. 경력이 쌓이면서 업무에 익숙해지고 따라서 업무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지적하는 응답자들도 다른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31세에 아빠가 된 한 응답자의 다음과 같은 응답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직장일이 바빠서 아기와 놀아줄 시간이 없거나 그런 경우는 없으신지요?) 불행히도 그게 없습니다(웃음). 옛날에는 많이 바빴는데 최근에는 세가 계속 같은 일을 하다보니까 일을 빨리 처리할 수 있게 되서... 6시만 넘으면 퇴근하고 그러니까...”

그러나 이들 '늦은' 아버지들은 승진에 대한 부담을 직업역할 스트레스로 지적하는 응답자들이 많아서, 직장초기의 새로운 업무의힘과 관련된 업무 스트레스와는 다른 측면의 스트레스를 역시 경험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즉 전이시기 집단 간에 직업스트레스의 내용에 있어 차이가 날 뿐 서구문화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늦은' 아버지들이 다른 전이집단에 비해 직업스트레스가 완화되고 적게 경험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는 없음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즉 서구문화들이 주장하듯이 30대로 넘어가면서 직장역할 요구(career demand)가 줄어들고 정서적, 경제적 압박이 줄어드는 경향이 한국의 젊은 직장남성들에게게서는 뚜렷이 관찰되지 않았다.

직장역할과 가족역할이 상호갈등을 일으키는 경우로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일요일이나 휴일에 출근을 해야하거나 갑작스런 야근 때문에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등 가족과 관련된 행사를 놓치는 경우를 지적하고 있었는데 이집에 있어서도 전이시기 집단간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직장때문에 가정일에 방해받는 일은... 그런 경우 많지요. 제가 입사한지 만 4년이 지났는데, 2-3년차엔 일이 참 많아시, 집사람이랑 약속을 했는데 사소한 디미턴 회사일이 늦어지면 곤란하지요. 사소한 일이면 일 사람에게 맡겨 놓고 갈 수도 있는데, 중요한일이면 그게 곤란하잖아요. 그럴 때 회사일이 먼저였지요. 그때 가지고 집에 가면 한번씩 싸우고, 집사람 실족하고, 조급... 조급이 아니고 간혹 많이 생겼어요. 초창기에는 부정기적으로 많이 생겼어요.”

“연수가면서 결혼기념일을 놓친다등가 하는 일, 그리고 출생때 애기 백일이랑 딱 집친기 있죠. 그런 사소한 일이 자주 있는 편인데 뭐 이해를 해야지요.”

우리나라 직장 남성들은 이러한 정규업무외에도 퇴근후 술자리나 모임등이 빈번하며 이러한 비공식적 모임은 회사업무의 연장선상으로 보는 시각이 매우 일반적인 것으로 지적되어 왔는데 이러한 비공식적 모임 등으로 집에 늦게 귀가하는 횟수에 있어서 전이집단간에 별다른 체계적 차이가 눈에 띄지 않았다. 거의 모든 응답자들이 자녀출산과 함께 퇴근후 친구들과, 동료들과 술마시는 자리에 참석하는 빈도가 줄었다고 응답하고 있었다.

“(아빠가 되니까 그전과 달라진 점은?) 퇴근후 집

에 일찍 오게 되었죠. 일찍 오고, 약속을 안 만들고 바로 집에 오는 거죠. 약속같은 걸 옛날에는 참 재가 많이 했거든요. 친구 만나고, 요즘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집에 와서...”

“애기때문에 약속도 안하고 일찍 들어오는 편이구요.(그러면 친구들과 만나는 횟수가 줄었겠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 친구들이 다 그래요. 다 첫애가 생겼거나 결혼을 해서 임신을 했거나 이런 경우... 그러다보니 마음은 만나고 싶어도, 전화는 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모여서 만나려고 그러면 그게 안되더라구요.”

“(아가 출생후) 아무래도 일이 많아졌죠. 우선 빨래감이 많아지고 귀가시간이 보편적으로 빨라진 셈이고 직장 동료들과 술먹는 횟수도 많이 줄었구요.”

그리고 이러한 개인적 변화와 함께 기업의 분위기도 직업역할과 가족 역할간의 긴장가능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서서히 변화하고 있음을 응답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응답자들은 이를 ‘시절이 좋아졌다’고 표현하고 있었다.

“요즘은 시절이 좋아졌지요. 최근에는 각 기업들마다 사회생활도 중요하지만 가정생활이 안정이 안 되고는 직장생활이 힘들다는 걸 아니까. 모 기업에서는 가족들을 모아서 공장 견학도 시켜주는 걸 보면 일단 가정이 안정이 되야 직장생활이 잘 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더라도 무시를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봐서 동일시 되어야지요. 제 위에 계시는 분들은 사실은 그렇게 생각 못 했거든요. 불과 몇 년 전까지도요. 생각은 직장이 중요하고 가정도 중요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직장이 우선이었거든요. 저희들 세대는 좀 다르지요. 두 개가 동시에 양립이 되어지요.”

“지금은 좋은 시절이 되서 퇴근이 빠른데, 옛날에는 많이 늦었어요. 퇴근 시간이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그 때 그때 사정에 따라, 영업부 사정에 따라서, 물론 근로기준법에 하루 8시간 근무라 되어 있지만 그렇게 정해지지는 않았어요. 얼마전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이제는 많이 달라지는 거 같아요. 요즘은 퇴근 시간이 5시 30분인데, 이유없으면 그 시간에 맞춰서 나가는 편이에요.(요즘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간을 이야기하시는 건지요?) 뭐 1~2년 사이에 많이 달라진 거지요. 조기 출퇴근제를 삼성 그룹에서 시작하고 난 뒤

에 바로 우리 회사에서도 그렇게 실시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직장에서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날 일은 그날 하고, 근무강도를 높여서 할 때는 열심히 하고 딱 끝내고 퇴근하라는 게 사장님 방침이고,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 집에서 퇴근 시간이 5시 30분인 거 알거든요. 옛날에는 6시, 7시, 어떤 때는 10시에 끝나고, 그때에 비하면 퇴근 시간이 엄청나게 빠른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많이 개선되었지요”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본 조사 대상자 중에서도 일부만이 현실로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아직 변화가 보편적이라고 할 수 없으며, 실제 앞으로 변화되어야 할 방향을 시사해준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남성들이 직장일로 가족과 함께 할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성역할 태도의 변화나 개인, 가족적 수준에서의 변화만으로 남성의 적극적 가족역할 수행을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특히 젊은 남성들이 일 중심 이데올로기에서 점차 탈피하여 가족에 중요성을 두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가족지향적 정책과 운영이 장기적으로 볼 때 결국 생산성 향상과도 연결된다는 사용자의 의식의 전환이 요구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다.

## V.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우리 한국사회에서도 사회변화에 따른 아버지 역할 기대 및 남성 생애과정상의 변화가 젊은 남성들에게 있어서 아버지 역할과 직업역할과의 긴장관계를 증가시키고 있다는 관점에서 부모기로의 전이와 직업역할간의 상호관계를 탐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만 2세 이하의 첫 자녀를 가진 남성을 대상으로 하여 아버지 역할 수행 및 직업역할 간의 상호관계 등을 살펴보고, 아버지로의 전이 시기에 따라서 역할수행의 유형이나 긴장관계 등이 차이가 있는지 탐색하고자 하였다. 젊은 남성들이 결혼 후 자녀 출생에 따른 부모기로의 전이를 경험하는 가족 형성기가 독립된 직업인으로서의 정체감을 형성해야 되는 직업경력상의 초기시기와 중복

이 되기 때문에 역할긴장 및 스트레스를 보다 더 경험하게 된다는 가정에 기초하였다.

심층 면접 자료의 분석 결과, 많은 응답자들이 직업역할에 있어서 직장 초년병으로서 업무를 익히는 시기와 결혼, 출산 등의 가족 역할의 중복에서 시간이나 에너지 부족 그리고 경제적 부담을 경험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전이시기 집단 별로 직장역할과 가족역할간 갈등 정도에 있어 차이가 나는가 살펴본 결과 아버지로의 전이가 빠르다고 지적하는 응답자들과 'on-time' 응답자들에 비해 전이가 '늦은' 응답자들이 직장에서의 위치가 어느 정도 안정되었다고 지적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이 쌓이면서 업무에 익숙해지고 따라서 업무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지적하는 응답자들도 다른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최근들어 새로운 아버지 상의 대두, 남성의 자녀양육 참여에 대한 사회적 기대 증가 등으로 특히 젊은 세대들은 기성세대보다 더욱 더 직업역할과 아버지 역할 사이에 독특한 갈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증가한 것으로 지적되는데, 이렇게 아버지로의 전이가 30대 이후에 이루어지면 직업역할과 아버지 역할의 요구를 조화시키는데 효율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보겠다. 또한 전이를 연기하지 않은 아버지들을 위해서는 이숙현(1995)이 지적하였듯이 부모역할로 전환하는 시기 동안이라도 근무 스케줄 조정에 자율성을 준다면 직업역할과 아버지 역할의 긴장 가능성이 감소할 수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늦은' 아버지들은 승진에 대한 부담을 직업역할 스트레스로 지적하는 응답자들이 많아서, 직장초기의 새로운 업무익힘과 관련된 업무 스트레스와는 다른 측면의 스트레스를 역시 경험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즉 전이시기 집단 간에 직업스트레스의 내용은 차이가 나지만 서구문헌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늦은' 아버지들이 다른 전이집단에 비해 직업스트레스가 완화되고 적게 경험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는 없음을 나타내다고 하겠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직장역할과 가족역할이 상호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로 휴일에 출근을 해야하거나

갑작스런 야근 때문에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등 가족과 관련된 행사를 놓치는 경우를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 직장문화는 이러한 정규업무외에도 퇴근후 술자리나 모임등을 회사업무의 연장선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지적되어 왔는데 본 연구에서 조사한 젊은 아버지들은 이러한 측면에서 변화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퇴근후 술자리에 참여하는 빈도가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었으며, 그리고 이러한 추세에는 직장우선주의에서 탈피하면서 가정도 마찬가지로 중요시하는 젊은 남성들의 의식이 근저에 있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었다. 근무시간이나 퇴근후 업무와 관련된 모임, 업무 이외의 비공식적 모임등으로 집에 늦게 귀가하는 횟수에 있어서는 전이시기 집단간에 별다른 체계적 차이가 눈에 띄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볼 때 본 연구의 기본 가정의 하나로 탐색하고자 하였던 전이시기 집단별 차이가 본 조사 대상 남성들에게서는 대체로 발견되지 않았다. 우리나라 출산행동의 독특한 확실성, 즉 첫아기 출산이 결혼후 1-2년에 대개 집중되어 있어서 아버지로의 전이시기의 차이가 출산시기를 조정할 다양함에 따른 것이라기 보다는 결혼연령에 의해 주로 결정되었다는 점이 원인 중의 하나가 아닐까 싶다. 전이시기에 따라 역할 만족도에 있어 차이가 난다는 서구의 연구들과는 달리, 집단간 차이가 없이 거의 모든 응답자가 아버지됨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표현하고 있었는데, 이는 자녀 출산과 아버지됨에 대한 문화적 기대치가 크고 잘 자리잡은데 한 원인이 있지 않을까 싶다. 심층면접으로 되도록 솔직한 이야기를 듣고자 시도하였으나 짧은 시간에 수행되었다는 한계점 때문에 깊은 이야기를 끌어내는데 부족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따라서 문화적으로 바람직한 획일적인 응답이 나왔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겠다. 후속 연구의 축적으로 이어지면서 이러한 측면에 대한 탐색이 가능하리라 보고 본다.

### 【참 고 문 헌】

- 1) 고선주, 옥선화 (1993). 부모기로의 전이에 관한

- 연구Ⅱ : 부모기 전이에 따른 부부결혼 적응의 변화. 대한가정학회지 31(3):127-141.
- 2) 김은희 (1994). "도시 중산층에서의 핵가족화와 가족내 위계관계 변형의 문화적 분석" 한국 문화 인류학, 25집 pp.183-222.
  - 3) 박숙자 (1991). 첫 자녀 출생과 부부관계의 변화. 여성사회사연구회편. 한국가족의 부부관계. 141-180.
  - 4) 송지은, 한경혜 (1994). 남성의 부모기로의 전이에 대한 보상-대가 지각의 유형. 대한가정 학회지 32(4):73-83.
  - 5) 양명숙 (1991). 부모 전환기에서의 결혼 만족도 연구. 가족학 논집 3:31-54.
  - 6) 이숙현 (1990). 부모기로의 전환에 따른 부부관계의 변화. 가족학 논집 2:11-27.
  - 7) 이숙현 (1995). 남성의 취업과 가족 상호 작용. 한국사회학. 29:271-289.
  - 8) 이숙현((1995). 장년기 아버지의 일과 가족생활. 한국 가족학 연구회 가정복지 세미나 발표집. pp. 7-34
  - 9) 한경혜 (1993). 한국 남성의 성인기로의 전이유형의 변화. 한국사회사연구회편. 한국 근·현대 가족의 재조명. 문학과 지성사. pp.121-171.
  - 10) 한경혜(1995). 중년기 아버지의 일과 가족생활. 한국 가족학 연구회 가정복지 세미나 발표집. pp. 35-80
  - 11) 최혜경(1995). 노년기 아버지의 일과 가족생활. 한국 가족학 연구회 가정복지 세미나 발표집. pp. 81-110
  - 12) Barnett, R.C., Marshall, N.L. & Pleck, J.H. (1992). Men's Multiple Roles and Their Relationship to Men's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358-367.
  - 13) Cohen, T.F. (1987). Remarkings men: Men's experiences becoming and being husbands and fathers and their implications for reconceptualizing men's lives. *Journal of Family Issues* 8:57-77.
  - 14) Coltrane, S. (1990). Birth Timing and The Division of Dual-Earner Families. *Journal of Family Issues* 11:157-181.
  - 15) Coltrane, S., Ishii-Kuntz, M.(1992). Men's housework: A life course perspectiv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 16) Cooney, T.M., Pederson, F.A., Indelicato, S. & Palkovitz (1993). Timing of Fatherhood: Is On-Time Optimal?.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205-215.
  - 17) Daniels, P., Weingarten, K.(1982). Sooner or later. NewYork: Norton.
  - 18) Glaser, B., Strauss, A. (1967).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New York: Aldine.
  - 19) Greenhaus, J.H. (1989). The intersection of work and family roles. In E. B. Goldsmith(ed.). *Work and Family: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 pp.23-44. Newbury Park: Sage Pub.
  - 20) Hogan, D.P. (1978) The variable Order of Events in the Life Cours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3(August )pp.573-86.
  - 21) Kelly, R. & Voydanoff, P. (1985). Work/family role strain among employed parents. *Family Relations* 43:367-374.
  - 22) Menaghan, E.G. & Parcel, T.L. (1990). Parental Employment and Family Life: Research in the 1980'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1079-1098.
  - 23) Nydegger, C.N. (1973). Timing of fatherhood: role perception and socializ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 24) Oppenheimer, V.K. (1974). The life-cycle Squeeje : *The interaction of men's occupational and family life cycles. Demography* 11:227-245.
  - 25) Pleck, J.H. (1979). Men's Family Work: Three Perspectives and some New Data. *Family Coordinator*:481-487.
  - 26) Pleck, J.P. (1977). The work-family role system. *Social Problems* 24:417-127.
  - 27) Rapoport, R., Rapoport, R.(1969). Dual-career family: A variant pattern and social change.

- Human Relations, 22, 3-30.
- 28) Roosa, M.W. (1988). The effect of age in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Family Relations* 37: 322-327.
- 29) Staines, G.L. (1986). Men's Work Schedules and Family Life. In R.A. Lewis & M.B. Sussman (eds.), *Marriage and Family Review*.
- 30) Thompson, L., Walker, A.(1989). Gender in families: women and men in marriage, work, and parenthood. *J. of Marriage and Family* 51: 845-871.
- 31) Voydanoff, P. (1988). Work role characteristics, family structure demands and work/family conflic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749-761.